

Global Market Report

2017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전망 및 시장여건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개 요 / 2

II. 2017년 지역별 수출여건 / 7

7	1. 북미
9	2. 중국권
11	3. 유럽
13	4. 일본
15	5. 동남아·대양주
17	6. 서남아
19	7. 중동·북아프리카
21	8. 중남미
23	9. CIS
25	10.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요 약

□ (전체) 우리나라의 '17년 수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125억 달러 전망

<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억 달러, %) >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268	△8.0	4,955	△5.9	5,125	3.4

주 : 2016년은 추정치, 2017년은 전망치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64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지역별) 북아프리카 제외,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 수출 회복 전망

- 선진시장의 경기 부양 노력이 본격화되며 수출 회복세 견인 전망
- 신흥시장은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재 시장 확장 등으로 인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하방리스크 존재
- 對중국 수출은 경제 경착륙 우려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증가폭이 2.5% 그칠 전망

< 지역별 수출 증가율전망 (%) >

북미	중국권	유럽	일본	동남아	대양주	서남아	중동	중남미	CIS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4.0	2.5	3.8	3.0	4.0	3.0	7.0	3.7	3.1	5.0	△1.6	8.7

□ (산업별) 기계류, 자동차 부품 호조, 무선통신기기, 섬유, 선박 부진 전망

- 선진시장의 경기 회복, 인프라 투자 확대(기계), 자동차 현지 생산 증가,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자동차부품)
-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 생산시설 해외 이전(무선통신기기, 섬유), 선박류 수출은 '17년 조선경기 불황 지속(선박류)

I 개요

□ (전체) 우리나라의 '17년 수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125억 달러 전망

- '17년 수출액은 '16년 대비 171억 달러 증가 전망
 - 저유가·전세계적 경기부진으로 '15~16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 기록
 - '17년에는 주요 시장의 경기 회복과 '16년 대비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반등 기대

<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268	△8.0	4,955	△5.9	5,125	3.4

주 : 2016년은 추정치, 2017년은 전망치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641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주요 기관들은 '17년 세계상품 교역이 전년보다 1.8~3.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IMF: ('16) 2.3% → ('17) 3.8%, WTO: ('16) 1.7% → ('17) 1.8~3.1%

□ (지역별 수출) 선진시장 수출 호조세, 신흥시장은 북아프리카 제외 수출 증가세

- 선진시장의 경기 부양 노력이 본격화되며 수출 회복세 견인 전망
 - (북미) 제조업·인프라투자 활성화 및 강달러 유지로 수출 전년대비 4% 증가 전망
 - (유럽) EU 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라 수출 전년대비 3.8% 성장 전망
 - (일본) 정부 주도의 건설·설비투자 확대로 수출 3% 증가 예상
- 신흥시장은 인프라 투자 확대, 소비재 시장 확장 등으로 인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하방리스크 존재

- (인도) 경기 고속 성장에 따른 수입시장 확대에 수출 7% 증가 전망
 - (CIS) 경기 회복 및 미국을 제외한 서방과의 갈등에 따른 수입 대체 현상으로 수출 5% 증가 전망
 - (동남아) 정부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추진 및 소비재 시장 성장으로 수출 4% 증가 전망
 - (북아프리카)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경기 부진 및 수입규제 강화로 수출 1.6% 감소 전망
- 對중국 수출은 경제 경착륙 우려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증가폭이 2.5% 그칠 전망

< 2017년 지역별 수출 전망 >

(단위: 억 달러, %)

지역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5,268	4,955	△5.9	100.0	5,125	3.4	100.0
북미	745	714	△4.2	14.5	742	4.0	14.5
중국권	1,796	1,695	△5.7	34.2	1,737	2.5	33.9
유럽	550	515	△6.3	10.4	534	3.8	10.4
일본	256	244	△4.8	4.9	251	3.0	4.9
동남아	751	748	△0.4	15.1	778	4.0	15.2
대양주	206	172	△16.4	3.5	177	3.0	3.4
서남아	141	137	△3.1	2.7	146	7.0	2.9
중동	325	273	△16.0	5.5	283	3.7	5.5
중남미	307	254	△17.0	5.1	262	3.1	5.1
CIS	74	72	△2.8	1.4	76	5.0	1.5
북아프리카	41	42	3.5	0.9	42	△1.6	0.8
남아프리카	76	89	16.7	1.8	97	8.7	1.9

주1) 2015년은 추정치, 2016년은 전망

주2) 지역구분 : 중국권(중국·홍콩·대만),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제외)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641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선진시장의 경기 회복, 인프라 투자 확대로 기계류 수출 확대 전망이며, 자동차 현지 생산 증가,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도 호조세 기대
-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으로 무선통신기기, 섬유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박류 수출은 '17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일반·정밀 기계) 북미·일본·유럽 등 선진시장의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건설투자 확대로 기계류 수요 증가 전망**
 - 중국은 경기 성장세 둔화 및 자체 생산 능력 제고로 기계 수입 감소 전망
 - * '16.1~10월 수출 증가율: (기초산업기계) △3.7%, (산업기계) △10.1%, (정밀기계) △16%
- **(자동차·자동차부품)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차량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지 생산 확대로 자동차 직수출 증가는 제한적, 자동차부품 수출은 호조 전망**
 - 북미·유럽은 민간소비 개선과 고용 증대로 자동차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나, 중동지역은 경기 악화로 신차 구입 수요 감소 전망
 - 자동차부품은 해외 부품 조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지역과 한국 진출기업의 부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전망
- **(석유화학·석유)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소폭 상승 전망, 석유제품은 수입선 다변화로 수출 감소 우려**
 - 중국은 석유제품 환경기준 강화로 한국산 고품질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동남아는 수입선 다변화로 석유제품 수입 소폭 감소 전망
-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및 가격 상승으로 북미·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 예상**
 - * DRAM 가격(4Gb, \$): ('16.1월) 1.89 → (5월) 1.47 → (9월) 1.82 → (11월) 2.55
 - '17년 하반기 중국 기업의 반도체 시설 투자 확대가 예상되어 경쟁 심화 우려
 - * 칭화유니그룹(120억불), XMC(240억불), Sino King(70억불) 투자 계획

- **(평판디스플레이)** OLED를 장착한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TV 수요 확대로 OLED 수출은 확대되는 반면, LCD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
 - 중남미·중동에서는 중국산 저가 디스플레이와의 경쟁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국·동남아·북미지역에서 꾸준한 수요 유지
- **(무선통신기기)**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중저가 스마트폰과의 경쟁이 한국산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을 계속해서 압박할 전망
 - 중국·동남아·중남미 지역에서 화웨이, VIVO, OPPO 등 중저가 제품의 공세에 직면
- **(가전·컴퓨터)** 가전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북미·동남아 지역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컴퓨터는 PC, 노트북, 태블릿PC 수출은 감소하고 SSD 수출 증가가 계속될 전망
 - 사물인터넷, 프리미엄 가전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수출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섬유류)** 생산시설 해외 이전,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로 섬유류 수출은 소폭 감소 전망
 - 한-베트남 FTA 효과로 베트남으로의 섬유 수출은 다소 증가 전망
 - 북미·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한국산 특수 섬유 및 원단의 인지도 제고에 따라 고기능 제품군의 수출 확대 기대
- **(철강)** 중국발 과잉공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유럽·동남아 지역의 철강수요 증가로 철강 수출은 현상 유지 전망
 - 동남아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일본의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정비, 중동부 유럽의 건설 프로젝트 등이 철강 수요를 이끌 것으로 예상
- **(선박)** '15~16년 지속된 저유가 기조로 인한 선박·해양플랜트 발주 지연, 수주 잔량 감소로 선박류 수출 감소세 지속될 전망
 - * '16.11월 기준 수주 잔량은 2,046만 CGT로 13년만에 최저치 기록

< 2017년 주요 품목의 지역별 수출 전망 >

품목명 (MTI코드)	2017년 전망(2016년 대비 증가율)										
	전체	북미	중국권	유럽	일본	동남아	서남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일반·정밀기계 (71,72,73,75,79)											
자동차 (741)											
자동차부품 (742)											
평판디스플레이 (836)											
반도체 (831)											
무선통신기기 (812)											
가전 (82)											
컴퓨터 (813)											
섬유 및 의류 (4)											
철강제품 (61)											
석유화학 (21)											
석유제품 (133)											
선박류 (746)											



호조(10% 이상 증가)



양호(3~10% 증가)



양호(3~10% 증가)



하락(0~10% 감소)



급락(10% 이상 감소)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641개 정보원 의견 종합)

II

2017년 지역별 수출여건

1

북미 [4.0% 증가]

미국 경제의 온건한 회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新정부의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 등 제조업 활성화 노력과 달러 강세 유지로 우리나라의 對북미 수출은 '16년 4.6% 감소에서 '17년 4.0%로 증가할 전망

□ 2017년 북미시장 주요변화

○ 미국, 온건한 회복세 지속

- '17년 투자 부진·생산성 저하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비 확대는 지속될 예정
 - * 美 '17년 경제성장률 전망: (연준) 1.8%, (IMF) 1.6%
-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미국 내 수요 감소 우려
 - * 연준 '16.12월 기준금리구간 0.5%~0.75%로 인상(0.25%p ↑), '17년에도 3회 이상 추가 인상 전망

○ 新정부의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로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총력

- 5년간 인프라 1조 달러 투자, 소득세·법인세 감세, 금융산업 규제 완화
- 건설, 에너지, 제약 산업 성장 기대
 - * 트럼프 정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 이행 시, 건설, 통신 인프라, 운송, 건설 기자재 분야 수요 확대 전망
 - * 화석연료 개발 추진으로 인한 셰일오일 시추·운송 설비 수요 증대 및 의약품 수입 개방으로 인한 수입 제약시장 확대 전망

○ 新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통상·무역 마찰 확대 우려

- 미·중 통상마찰, 자유무역협정(TPP, NAFTA 등) 재검토, 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환율개입 제재) 등 통상위험 심화

○ 소득 증가로 중상위 소득층이 두터워지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미용·통신·여가 소비 확대 전망

- * 중상위층(가구소득 10만~35만 달러): ('79)12.9%→('14)29.4%, 중산층(가구소득 5만~10만 달러): ('79)38.8%→('14)32%

- 캐나다, 제조업·서비스업 호조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 캐나다 달러 약세 영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호조
 - * GDP 성장률 전망: ('15)1.1%→('16)1.9%→('17)2.0%
 - 캐나다 연방정부, 향후 10년간 인프라 확충에 1,200억 캐나다달러 투자 예정
 - * 1단계(2016~2017년) 대중교통 34억, 공공시설 34억, 청정설비 50억 캐나다 달러 투자 착수

□ 2017년 북미지역 수출여건

- 달러 강세 기조 유지로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
 -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 확산,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가치 상승 전망
 - 단,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16.10월)하며 원화 평가절하를 경계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혁신기술 기반 신시장과 소비재 시장 확대 전망
 - 가상·증강현실 기술, 사물인터넷 등 혁신기술 관련 신제품 수요 확대
 - * 가상·증강현실 시장규모 1,820억 달러('25년), 사물인터넷 1조 7,000억 달러('20년) 전망
 - 뷰티·식품·건강관리 지출 확대 및 한국 화장품, 한식 인지도 상승으로 식품, 화장품 수출 증가 기대
- 한-캐나다 FTA 발효('15.1.1.) 효과 가속화 전망
 - '17.1.1일부 자동차 부품, 인조바닥재, 기초화장품 등의 관세가 철폐되며, 전체 교역품목의 93.2% 무관세 혜택

□ 對북미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일반·정밀기계 등
 - 프리미엄 스마트폰 및 (진화된) ICT기기 수요 증가(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기계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일반·정밀 기계)
- (부진품목)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
 - 저유가로 인한 현지 석유화학 제품 조달 증가(석유화학), 현지 신규 정제 시설 확대(석유제품), 철강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강화(철강)

2 중국 [2.5% 증가]

산업 구조조정, 소득 재분배 정책,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중국 안정적 중속 성장, 한-중 FTA를 이용한 시장 기회 확대에 우리나라의 對중국 권 수출은 '16년 8.0% 감소에서 '17년 2.5%로 증가할 전망

□ 2017년 중국 시장 주요변화

○ 중국 경제 '견착륙(Firm Landing)' 전망

-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높았으나 '16년 3분기 연속 6.7% 성장률 시현, '17년 5.6%~6.5% 성장 전망
 - * '17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WB) 6.5%, (IMF) 6.2%, (노무라) 5.6%, (무디스) 6.3%
- 소득재분배 정책에 따른 가계 소비 상승 및 서비스업 확대에 경제 활기

○ '차이나 인사이트' 가속화

-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자국산 제품 경쟁력 향상, 중간재 국산화 도모
 - * 중국제조 2025: 시장역할 확대, 대외개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4대 과제 추진(①혁신능력 제고, ②품질 제고, ③제조업과 정보화 결합, ④녹색성장)
 - * 공급측 개혁: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과 활용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
- 중간재 수입은 감소하는 한편, 하이테크 분야 핵심부품 수입은 증가 전망

○ AIIB 활용을 통한 동북아·유라시아 지역 투자 확대

-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국의 진출 기회 확대
 -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자본금 1,000억 달러로 교통, 통신, 물류, 에너지, 전력, 수자원, 도시개발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
 - *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교통, 전력, 도시인프라 사업 보유
- 중장기적으로 일대일로 연관사업, 6대 경제회랑 구축사업 지원 전망
 - * 6대 경제회랑: 중국-인도차이나 등 일대일로 전략 핵심인 '오통'을 관통하는 주요 지역

○ 국내 수요 진작과 소비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 U턴' 정책 추진

- 소비재 관세 인하, 소비세 인하, 면세점 증설, 해외 관광객 물품 통관과 세금 환급 간소화 등
- 한국산 소비재의 단가 하락, 시장진입 기회 확대와 동시에 현지 소비재 기업의 경쟁력 향상 전망

□ 2017년 중국지역 수출여건

○ 한-중 FTA에 따른 시장 진입 우위 확보

- 신속통관, 비관세 장벽 제거, 서비스 투자환경 개선 등 효과
- 서비스·프로젝트 등 新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 * ‘일대일로 프로젝트’ 수주기회 확대 기대, 한국 내 실적 인정 등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참여기준 완화 전망

○ 트럼프 집권 이후 미-중간 경제분야 갈등 확대

- 미국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각종 중국산 저가 제조업 제품에 대한 공격 및 규제정책을 단행할 가능성 높음.
-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갈등이 본격화 될 경우 한국기업에도 악영향

○ 한-중관계 냉각모드 우려

- 사드배치, 불법조업 문제 등 정치외교 갈등으로 비가시적 한국 기업 제재 및 갈등 발생 가능성 존재

□ 對중국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석유제품, 철강 등

- 중국 내 석유제품 환경기준 강화(석유), 인프라 투자 증가로 건축 강재, 시공기계, 화물 트럭 등의 생산 증가 전망(철강)

○ (부진품목) 일반·정밀기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중국 기계 산업 발전 및 수입 수요 대체(기계), 현지 생산 확대 및 연비규제 강화(자동차)

3 유럽 [2.5% 증가]

ECB의 양적완화에 힘입어 EU 회원국 대부분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한 역외국가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對유럽 수출은 '16년 3.5% 감소에서 '17년 3.8%로 증가할 전망

□ 2017년 유럽시장 주요변화

- ECB의 저금리·양적완화 조치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 '17년 EU 회원국 경제성장률 모두 플러스로 전환, 안정적 성장세 진입 예상
 - * 독일(1.5%), 영국(1.0%), 폴란드(3.4%), 루마니아(3.9%), 스페인(2.3%), 그리스(2.7%)
 -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소비·투자 확대 기대
 - * '17년, 설비투자(3.9%), 민간소비(1.6%) 증가 전망
- 신흥국 경기부진, 보호무역주의 등 EU 수출의 하방리스크 병존
 - 중국 등 주요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EU 수출 활력 감소 리스크 우려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과의 교역규모 감소, 美 대선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 EU 집행위, '17년 EU 경제성장률 소폭($\Delta 0.3\%$) 하향 조정('16.4월 전망치 1.9% → '16.11월 전망치 1.6%)
- EU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투자, 차세대 시장기회 부상
 - ICT 융합기술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열풍
 - * 독일 Industrie 4.0 정책, 영국 핀테크·사물인터넷·무인자동차 집중 육성, 프랑스 전기자동차·친환경선박·로봇 등 미래산업 육성기금('16-'20) €100억 운영
 - 글로벌 기업, 산업 재편에 따라 ICT 융복합, 친환경기술, 소재경량화 등 기술 고도화 전략 추진 중
 - * Benz (소재경량화, E-Mobility 등 차세대기술 개발), VW ('16년 투자비용 €120억을 차세대 차량기술 개발에 배정), Maersk (규제강화에 따라 CO₂ 절감 등 친환경기자재 수요 확대)

□ 2017년 유럽지역 수출여건

- '17년, EU경기 호조세 본격화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전망
 - 온라인유통시장 '15년 대비 12%성장, 한국산 소비재 수입 확대 지속

- * 한국산 화장품(↑109%), 주방용품(↑26%), 기능성신발(↑95%) 수입 증가 ('16.6월 전년 동기비)

○ 경쟁 심화에 따라 현지 기업의 원가 절감·수입선 다변화 전략 강화

-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기계류 등 기존 구매선을 아시아로 확대 中
 - * Volvo, Jaguar, Benz(자동차부품), ABB(기계류), Maersk, Tom(조선), Alstom(철도) 등
- 한국 의료제품, 가격경쟁력·기술력 상승과 맞물려 수출 효자 품목으로 등극
 - * 한국산 의료기구 39%, 의료용진단기기 21%, MRI촬영기기 65% 수입 증가 ('16.6월, 전년 동기비)

○ 경쟁국의 투자진출 강화·역내 교역비중 증가

- 중국, 기술확보를 위한 對유럽 M&A 진출 급증 (총 164건, '16년 상반기)
 - * '16년 상반기 해외기업의 對獨기업 투자액 가운데 약 40%가 중국자본**
- EU 역내교역비중 68%로 '13년 대비 10.8%p 증가
 - * 유럽바이어, '유럽내 취약한 현지화 기반'을 한국기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 ('16.7월 유럽지역본부 설문조사 결과, 유럽바이어 51개사)

○ 유로화 약세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부담

- 유럽중앙은행(ECB), 사상 최저 금리·양적완화정책 시행 지속으로 유로화 약세 장기화 전망
 - * ECB, '17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국채매입 정책을 6개월 연장할 가능성 시사

□ 對유럽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일반·정밀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등

- 경기회복, 건설·설비투자 확대(일반·정밀 기계, 철강), 신규모델 출시에 따른 판매 증가 효과(자동차), 한국산 섬유·원단에 대한 인지도 개선(섬유)

○ (부진품목) 석유제품, 선박 등

- 현지 생산시설 가동(석유제품), 선박인도 급감 및 중국 조선소와의 발주경쟁 심화(선박)

4 일본 [3.0% 증가]

일본 정부의 본격적인 예산 투입 및 인프라 투자 효과로 내수 및 수출 회복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은 '16년 4.6% 감소에서 '17년 3.0%로 증가 전망

□ 2017년 일본시장 주요변화

- 정부투자·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 견인해 '17년 1.2% 성장 전망
 - '16년 제 2차 추경예산 투입, '17년 인프라 투자 효과로 경제성장 전망
 - * IMF '17년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0.6%, 일본 내각부 1.2%, 민간 연구기관(16개) 평균 1.1%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일본 수출도 증가 기조 유지 전망
- 기업수익 개선으로 설비투자 증가 예상
 - 내수 및 수출 회복으로 기업 실적은 '16년 대비 개선 전망
 - 인력부족 해소, 생산력 증강,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 그동안 지연되었던 설비투자가 회복될 전망
 - * '17년도 일본 설비투자는 민간 연구기관(16개) 평균 1.9% 증가 전망
- 日 정부,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17년 본격 시행
 - '16.8월, 재정지출 13.5조 엔 등을 포함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 사업으로 총 28.1조 엔 규모의 예산투입 결정
 - 이 중 '유·무형의 인프라 정비'에 약 10.7조 엔 규모의 예산 투입
 - '17년 상반기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실시될 전망이며, 철강, 전자재, 건설기계 등 인프라 정비 관련 품목 수출 증가 기대
- 단카이 세대의 70대 돌입,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 가속화
 - 일본 베이비붐 세대(1947~1949출생)인 단카이 세대가 '17년부터 70세에 진입하면서 일본 사회의 고령화 사회 대응 박차
 - 고령자의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日 소비주체의 주역으로 부상
 - * 60대 세대주의 경우 '스포츠클럽 이용료' 지출이 크며, 70대 이상 세대주는 '건강식품' 소비가 눈에 띈.

□ 2017년 일본지역 수출여건

○ 엔화 강세에 따른 日 글로벌 기업의 해외조달 강화 전망

- '16년부터 시작된 엔화 강세로 수익이 악화된 일본 수출기업들이 수익개선을 위한 해외조달 확대 중
 - * 달러당 평균환율 : ('15년) 121.04엔 → ('16.8월) 101.30엔 → ('16.11월) 108.61엔 → ('17, 전망) 108.11엔 (15개 연구기관 전망 평균)
- 美 대선의 영향으로 일시적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엔화 강세 전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해외 조달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

○ 일본 완성차 메이커 신흥국 진출 가속화

- 일본 국내생산 급속 축소, 해외생산 비율 확대 중
 - * '15년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해외생산 비중 66%로 사상 최고치 경신
- 해외 생산거점을 보유한 우리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기회 발생 기대
 - * 해외 생산 거점은 현지 조달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 조달권을 보유하는 경향 (지산지소 원칙)
 - * 현지 생산거점 조달 실적 누적을 통해 향후 일본 직접수출 기회로 연결 가능

□ 對일본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일반·정밀기계, 철강, 섬유, 자동차부품 등

-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설비투자 확대(일반·정밀기계, 철강),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기업 일본 진출 확대(섬유), 엔화 강세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자동차부품)

○ (부진품목) 무선통신기기 등

- 일본 내 아이폰 선호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스마트폰 수출 고전 지속
 - * 日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 '17년 발매 예정 신상품에 LG V20 외 한국 제품 미포함

5 동남아 · 대양주 [동남아 4.0% 증가, 대양주 3.0% 증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동남아 주요국의 외국인투자·내수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본격화, 소비재시장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동남아시아 수출은 '16년 3.1% 감소에서 '17년 4.0%로 증가, 對대양주 수출은 '16년 12.0% 감소에서 '17년 3.0%로 증가 전망

□ 2017년 동남아·대양주시장 주요변화

○ 정부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본격 추진

- (말레이시아) 종합석유화학단지 및 고속철도 등 대형 인프라사업 추진
 - * 뽕어랑 종합석유화학단지, 동해안 철도 프로젝트 추진 중
- (필리핀) 신정부, 적극적 인프라 개발 의지 표명
 - * 민다나오 철도 프로젝트('19년 공사 시작, 19억 달러) 등 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 '17년 신규 교통 인프라, 신공항 건설, 인터넷 설비 확장 프로젝트 등 추진 예정
-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대규모 교통망 확충 프로젝트 추진 중
 - * 오클랜드시 지하철 프로젝트(NZ\$25억), 경전철 프로젝트(NZ\$10억), Harbour Cross 프로젝트(NZ\$40) 추진

○ 美 트럼프 행정부의 TPP 철회 가능성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 미국의 TPP 철회 시 베트남 등 주요 수혜국의 입지 장점 축소, 외국인투자 및 내수 소비시장 위축 가능성 대두
- AEC, RCEP 등 역내 결속 강화 및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보수적 무역정책 전개 우려
 - * 중국 주도로 진행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개국 대상) '17년 이후 타결 전망

○ 유통·서비스 부문 경쟁 심화

- 베트남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일본, 태국, 싱가포르 기업의 M&A 투자 증가
- 중국 알리바바는 Lazada(동남아 전역), Redmart(싱가포르) 인수하며 동남아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 확대

□ 2017년 동남아·대양주지역 수출여건

○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소비재 수입 증가

-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 증가 및 소비재 시장 규모 확대
 - * 아세안 중산층 인구 : 2012년 1.9억 명 → 2020년 4억 명으로 2배 증가 전망
-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소비재시장 성장
 - * 2015년도 소비재 시장규모 1.4조 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5.6% 성장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및 소형가전** 등 소비재 수출 증가 전망
 - * 한-아세안 FTA 효과로 '17년부터 화장품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

○ 철강 산업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우리 철강제품 수출 제동

- 아세안 국가의 철강 관련 반덤핑과 상계관세 판정 및 제소 증가
 - * '16년 한국 관련 반덤핑(5건), 세이프가드(4건) 신규조사 개시
- 철강제품 인증 강화 등 비관세장벽 심화
 - * 태국산업표준원(TISI)는 철강제품 관련 필수인증(24개) 및 임의인증(2개) 품목 신설 계획 중

□ 對아시아·대양주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자동차·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등

- 한국산 자동차 이미지 개선으로 수요 증대(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로 수출 여건 개선(자동차부품), 판매점용 디스플레이 및 스마트 TV 보급(평판디스플레이), 소득향상 및 중산층 증가(가전)

○ (부진품목)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석유·석유화학 제품 등

- 중국산 중저가 제품과의 경쟁 심화(무선통신기기), 저유가 지속(석유·석유화학), 중국, 태국, 대만 브랜드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컴퓨터)

6 서남아 [7% 증가]

'17년에도 인도는 고속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비중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의 對서남아 수출은 '16년 4.2% 감소에서 '17년 7.0%로 증가할 전망

□ 2017년 서남아시아 시장 주요변화

- 글로벌 경기침체기 가운데 인도는 유일하게 고성장하는 국가로 부상
 - 인도 경제 향후 10년간 7%대의 고속성장 구가 전망
 - * IMF, 인도를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빛나는 'Bright Spot'이라고 평가
 - * 인도 경제성장률: ('15) 7.4% → ('16.1분기) 7.9% → ('16.2분기) 7.1%
 - 인도 GDP는 2조 910억 달러('15년 기준, 세계 7위)로 이미 글로벌 강국에 진입
- 조세제도 개혁으로 기업 환경 개선
 - 단일부가세(GST)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16.8월)되었으며 '17.4월 도입 예정
 - * 현재 주(州)·품목별로 15~40%의 차등적인 부가세 부과
 - 세금행정 효율화로 기업의 행정비용 감소 및 물류비용 절감 전망
 - * 인도 전역에서 단일 부가세를 적용 받게 되어 29개주 단일시장 형성

□ 2017년 서남아시아 지역 수출여건

- 인도 수입시장의 한국 점유율 증가
 - 저유가 지속으로 인도 수입시장의 산유국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비중 급증
 - * '16.7월 기준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비중은 3.59% ('14년 대비 0.68%p 상승), 중국은 17%('14년 대비 5.23%p 상승)
- 주력품목의 수입규제 대응 필요
 - 철강, 자동차 등 한국 주력 품목에 대한 인도정부의 수입규제 강화 추세
 - * 인도의 대한 수입규제 내역('16.6월말 기준): 총 24개 품목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부과, 이중 철강·금속 제품이 9건 차지
 - * '16년초 자동차에 인프라세 부과, 자동차부품 관세율 인상

□ 對서남아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 모바일, 통신 기기 보급 확대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인도 진출 증가(반도체), 소득 증가로 자동차 시장 성장(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으로 석유 및 LNG소비 증대(석유제품)

○ (부진품목) 철강, 석유화학 등

- 인도정부의 열연강판, 합금/비합금 강판 세이프가드 조치 및 반덤핑과세 부과(철강), 반덤핑 과세 부과(석유화학)

7 중동·북아프리카 [중동 3.7% 증가, 북아프리카 1.6% 감소]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경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소비재 시장 확대 및 환율 평가절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은 '16년 17.2% 감소에서 '17년 3.7%로 증가 전망, 對북아프리카 수출은 '16년 0.9% 증가에서 '17년 1.6% 감소 전망

□ 2017년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주요변화

-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경제성장률 3.4%로 정체
 - GCC 산유국의 경우 중동·북아프리카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2.3% 성장 전망
 - * GCC 경제성장률 전망('16.10, IMF): ('15) 3.3%→('16)1.8%→('17)2.3%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7년 상반기까지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유가 반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인구·소득 증가 및 한류붐 점화에 따라 소비재 시장 확장
 - 30대 이하 젊은 인구가 전체의 70%로 풍부한 내수시장 보유
 - 과거 건설, 중장비 위주의 진출에서 나아가 소비재 및 서비스(의료, 콘텐츠) 진출로 다변화 추세
- 저유가 장기화로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발주 및 민자발전(IPP) 시장 확대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제도, 보조금 및 세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예정
 - * (UAE) '15.9월 발표된 두바이 PPP법(Law No.22)으로 기존 수·전력분야에 한정되었던 민관협력프로젝트가 병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전망
 - * (쿠웨이트) 민자사업청(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 신설하여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여 발전소 및 신도시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라 중동 경제 불확실성 증대
 -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 증대 정책으로 유가 하방압력 가중
 - 미국의 대이란 강경정책으로 이란 건설시장에서의 수주활동 위축 우려
 - *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개발 협력 부문에서 미국의 참여도가 하락함에 따라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2017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수출여건

- 환율 급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기대
 - 달러-원화 환율 평가절상으로, 달러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는 對GCC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시 가격경쟁력에 긍정적 영향 기대
 - * 단, 유로, 엔화 대비 달러 환율도 상승 추세로, 미국을 제외한 경쟁 국가와의 가격경쟁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강화 추세
 - (이집트) 고질적인 외화 부족으로 '17년에도 각종 수입 규제정책을 시행 전망
 - (이란) 세수 확보 및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 국내 생산 가능제품 및 불요불급한 고가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고관세 정책 강화 방침
 - (알제리) 자동차, 식품류, 시멘트 등 주요제품에 대해서 수입허가제 실시 중
 - (사우디) GCC 최초로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반덤핑 조사('15.12월) 및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이드 조사 개시('16.6월) 등 수입규제 강화
- 중국-GCC FTA 타결 가속화로 중동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 중국과 GCC의 FTA 협상 재추진 합의('16.1월)
 - 중국-GCC FTA 협상이 체결되면 저렴한 중국제품으로 인해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 對중동·북아프리카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 한국기업과 제휴·협력 수요 증가(반도체),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로 인한 부품 수요 발생(자동차부품)
- (부진품목) 가전, 일반·정밀 기계, 철강, 평판디스플레이 등
 - 공장등록 등 수입규제 실시(가전), 유가하락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저조 및 경기 악화(일반·정밀 기계, 철강, 평판디스플레이)

8 중남미 [3.1% 증가]

중남미 국내 정치 혼란 감소, 원자재 가격 회복 등으로 경제회복에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개선돼 對중남미 수출은 '16년 18.2% 감소에서 '17년 3.1%로 증가 예상

□ 2017년 중남미 시장 주요변화

- 대내외 불안 요소 안정화로 내수경기 활성화 전망
 - 중남미 국가의 정치 혼란 감소, 구리 등 광물·원자재 가격 회복 등으로 인해 '17년 중남미 경제 회복 전망
 - * '17년 중남미 경제성장 전망: (IMF) 1.6%, (OECD) 1.5%, (ECLAC) 1.3%
 -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상승으로 내수경기·수입 활성화 전망
- 재정 건전화 및 외국인 투자 장려를 위해 민간 투자 증가
 -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계획
 - * (세계은행) 중남미 PPP 인프라 시장 규모는 795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56% 점유('15년)
 - 한국과 FTA가 체결된 칠레, 페루,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미국 중심주의 정책은 수출여건 개선으로 경기 회복을 노리는 중남미 국가에게 악재로 작용
 - TPP탈퇴, NAFTA재협상, 멕시코산 제품에 35% 관세 부과 등의 공약 실현 시 교역량 감소 불가피
 - * 멕시코 전체 수출의 80%, 수입의 10%를 미국에 의존

□ 2017년 중남미 지역 수출여건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멕시코) 주요 완성차업체(FORD, 도요타, BMW, 기아 등)의 생산량 확대 계획
- (브라질) '16.7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국산 부품 사용의무 완화
- (콜롬비아) 현대자동차의 분쟁 해결로 '17년부터 수입 재개 전망

○ **중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 확대**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

- 한-콜롬비아 FTA 발효('16.7월), 한-중미* FTA 발효 ('17년 상반기 예정),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17년 예정)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기회 확대 전망

* 중미 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 수입시장 1,470억 달러 규모, 에콰도르 215억 달러 규모

○ **환율 변동성 증가** 및 통화정책 변화로 국가별 수입시장 전망 상이

- (남미) 현지 화폐의 평가절상 및 통화정책 정상화로 기업들의 해외 조달 수요 증가 전망
- (중미) 미 대선 결과로 인해 대외무역 비중이 높은 멕시코 등 중미 국가들의 화폐가치 하락으로 수입 감소 전망

□ **對중남미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

-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진출 효과로 수요 증가(자동차부품), 현지 중산층 증가로 구매력 확대 및 인터넷 인프라 확충(컴퓨터)

○ **(부진품목) 선박,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등**

- 조선산업 불황으로 신규 발주 감소(선박), 중국산 저가 핸드폰과의 경쟁 심화(무선통신기기), 중국산 저가 디스플레이 제품 유입 및 올림픽 특수 소실(평판디스플레이)

9 CIS [5.0% 증가]

CIS 지역 전반의 경기회복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현지 진출 확대로 우리나라의 對CIS 수출은 '16년 3.0% 감소에서 '17년 5.0%로 증가할 전망

□ 2017년 CIS 시장 주요변화

- '17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플러스로 전환 예상
 - 외환관리 및 자국산업 다변화 등 위기관리를 통해 경제 성장세로 회복
 - * '17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IMF) 1.1%, (세계은행) 1.4%, (러 중앙은행) 0.5%~1.0%
 - 단, 물가안정을 위해 '17년에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전망
- 러시아 경기 회복으로 기타 CIS 국가 경제 도미노 성장 기대
 - (카자흐)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유전 및 운송망 투자 재개 가능
 - * 카샤간 유전의 생산 재개('16.11월)도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
 - (우즈벡) 러시아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 증가 및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가능성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통한 역내협력 및 보호주의 확대
 - EAEU 회원국간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 제품 인증 및 안전 규정 통합 등 역내 협력 강화 추세
 - * EAEU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 역외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영역 확대
 - * EAEU-베트남 FTA 발효('16.10월)로 양국 교역 대상 품목의 88% 관세 인하
 - * 현재 싱가포르, 태국, 이집트, 인도, 중국 한국 등 12개국과 FTA 검토 중
- 자국 산업 육성정책 강화
 - 통화가치 하락, 서방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자국 산업 육성 정책 본격 추진

- * (러시아) 산업개발펀드(3억 달러) 조성, 신규 제조설비 투자기업에 저리 자금 지원, (카자흐) 'Made in Kazakhstan' 캠페인 전개, (우즈벡) 경제 다변화·현대화 정책(410억 달러 투자)

- 식품가공, 경공업 분야의 수입대체화 빠르게 진행 중

□ 2017년 CIS지역 수출여건

- 자동차부품, 플랜트 기자재 등 對CIS 주력 수출 품목 시장 회복 전망
 - 현지 진출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증가로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 기대
 - * 현대차 신차 생산(러시아), GM '17년 자동차 생산 12% 증가 전망(우즈벡)
 - 우리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속
 - * 칸덤 가스광구개발 및 가스처리 플랜트, 타히아타쉬 발전소 프로젝트 등 추진
- 서방과의 갈등 지속으로 유럽산 수입 대체 품목 개발
 - * 치과용 인조부품, '15년부터 우리 제품이 독일을 제치고 수입 점유율 1위 차지
- 자국 산업 육성 정책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신규 수출 품목 발굴 가능성 증대
 - * 러시아의 자국 산업 육성 정책 추진으로 기계 수입 수요 증가
 - *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자로 미용, 건강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 對CIS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일반·정밀 기계, 철강, 가전 등
 - 제조업 육성정책 추진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일반·정밀 기계), 러시아 자동차 생산 증가 및 중앙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수주(철강),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수요 증가(가전)
- (부진품목) 섬유 등
 - 인근 CIS 및 터키로부터의 수입 증가

10 아프리카 [8.7% 증가] * 북아프리카 제외 사하라이남

남아공·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의 금융안정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주요국이 제조업 기반 확충, 인프라 개발 등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수출은 '16년 19.1% 증가에 이어 '17년 8.7% 증가 전망

□ 2017년 아프리카시장 주요변화

- 아프리카의 무게중심이 '자원'에서 '제조업'·'소비시장'으로 이동 본격화
 - 비자원보유국(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은 제조업 기반확충, 인프라 개발, 소비시장 육성으로 저유가에도 견실한 성장 유지
 - *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자원 의존적 국가(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성장 한계 봉착
-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협정(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움직임 부진
 - TFTA 참여국들은 '17년까지 자국 의회 비준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 진행 예정이었으나 협상 진행 과정에 차질 발생
 - * TFTA: COMESA(이집트 등 동남부 19개국), EAC(케냐 등 5개국), SADC(남아공 등 남부 15개국)의 통합
 - '16.10월 기준 26개국 중 17개국만 서명했으며, 비준 국가 없음.
- 아프리카 일부 국가 정치·치안 불안으로 경제 악영향 가능성
 - DR콩고(임기연장시도), 에티오피아(반정부시위), 모잠비크(반군점령), 남아공(대통령 부정부패 스캔들) 등 내부 정치 불안 확대
 - 보코하람(나이지리아), 알샤바브(케냐, 소말리아) 등 이슬람 무장단체 활동

□ 2017년 아프리카지역 수출여건

- 한국, AfDB 의장국으로 아프리카 경제 개발 주도적 참여 여건 조성
 - * AfDB 의장국 역할 수행('17.5월-'18.5월) 및 '18년 AfDB 연차총회 유치(부산/5.1-25)
- 주요국 금융 안정성 저하 및 외화 부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 우려
 - (남아공) 란드(Rand)화 평가절하로 '17년 국가 신용등급강등 가능성 등 주의 필요
 - (나이지리아) 외환보유고 하락 속 나이라(Naira)화 평가절하 심화
 - * 부하리(Buhari) 신정부, 외환통제 강화('15.8.5.) 및 변동환율제 도입

□ 對아프리카지역 수출 호·부진 예상품목

○ (호조품목) 석유, 일반기계 등

- 석유정제시설 부재로 수요 증가(석유), 케냐, 콩고, 가나, 남아공, 탄자니아 등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일반기계)

○ (부진품목) 플라스틱 제품 등

- 경쟁 심화 및 아프리카 지역 내 플라스틱 산업 확대에 따른 수입 대체

- '2016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전망 및 시장여건' 조사개요 -

- 조사목적 : 주요지역별 우리나라의 수출여건 점검 및 수출기업에 정책자료 제공
- 조사내용
 - 2016년 지역별 시장의 주요변화
 - 2016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 전망 및 전망 근거
 - 지역의 주요품목별 수출여건 등
- 조사대상 : 10개 지역
 - 북미, 중국, 유럽, 일본, 동남아대양주, 서남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등



작성자

◆ 북미지역본부	홍유선
◆ 중국지역본부	이은영 과장
◆ 유럽지역본부	이수영 차장
◆ 일본지역본부	김일경 차장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박범준 과장
◆ 서남아지역본부	박영선 차장
◆ 중동지역본부	송지은
◆ 중남미지역본부	임준희
◆ CIS지역본부	우상민 차장
◆ 아프리카지역본부	임재걸 차장
◆ 통상전략팀	임성아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6-060

2017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전망 및 시장여건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87617-90-7 (95320)

Copyright © 201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

2017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전망 및 시장여건
